

아버지와의 애착이 중학생의 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홍 종 숙[†] 고 연 경 유 정 진

텔루스연구소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하여 폭력태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경기지역 중학교 1, 2학년 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중학생 자녀의 폭력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녀의 공감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감능력은 폭력적인 태도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상기할 때,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을 통해 형성된 자녀의 공감능력이 폭력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폭력태도, 아버지 애착, 공감, 청소년

[†] 교신저자: 홍종숙, 텔루스연구소, Tel: 010-2447-2399, E-mail: hongjs6011@naver.com

서론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2007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도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18.3%, 가해율이 15.7%로 나타나 2007년 이후 6년간 가장 높은 폭력 가·피해율을 기록했다(청예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2).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2009년 대비 2.4배나 증가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현황」; 2012 의정보고). 피해학생 10명 중 4.5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70% 이상이 복수 충동을 느끼며, 실제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청소년들도 연간 120여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하며, 학교폭력으로 겪는 정신고통 치료비와 피해 규모가 2조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다(청예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2). OECD 국가 중 청소년 범죄 1위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 중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남학생들 뿐 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도 보편화 되어가는 현상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일탈로 이해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 또한 폭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공갈(금품갈취), 따돌림,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심리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집단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으며, 피해 학생이 받는 심리적 고통, 가해 학생의 무감각, 방관, 폭력 일상화 등의 문제는 더 이상 학교나 개인의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폭력태도는 폭력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이다. 폭력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폭력행동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폭력태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이 폭력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공감을 매개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여러 요인들 중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의 개인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적 친화력,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착 연구가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고 아버지가 아동 및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적 요구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 학교, 아버지교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강조되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원만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애착이 아동·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심리·정서발달에 더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아동의 성역할, 성취동기, 도덕성 발달에 어머니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Lamb, 1986), 친구관계의 질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Youngblade, Park, & Belsky, 1992; Kerns & Barth, 1995), 자녀의 사회성 발달(Lamb, Hwang, Frodi, & Frodi, 1983)과 지적, 사회적 능력 발달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Lamb, Pleck, & Levine, 1985)들이 있다. 또한 김소라(2004)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회라는 외부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청소년기의 사회성과 도덕성 발달에 어머니보다 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바람직한 폭력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감능력의 결여이다.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희경, 2003)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간접 경험함으로써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Moore, 1990).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내적작동모델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남미경, 방희정,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hon, 1992; Ryan, 1997),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가짐으로써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운, 2010).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와의 애착은 자녀의 폭력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된 공감능력이 바람직한 폭력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연구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버지와의 애착은 중학생 자녀

의 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아버지와의 애착과 자녀의 폭력태도 간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아버지와의 애착

Ainsworth(1989)는 애착을 “안전감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로서 개인에게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부 연구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에 비해 아이들의 정서에 덜 민감하고 자녀의 정서표현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어려워하며(Dougan, Brand, Waxler, Usher, Hastings, Kendziora, & Garside, 2007), 자녀의 신호나 행동에 대해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정서적으로도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vas, 2005).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형성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연구자들은 아버지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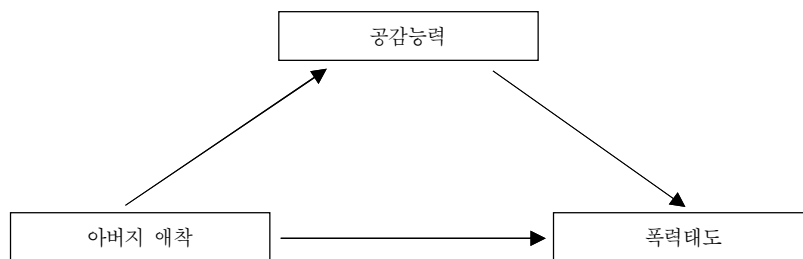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 애착과 폭력태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아버지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는 양육과 보호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지만, 아버지는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이현미, 1996). Parke(2005)는 연구를 통해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다른 기대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놀이를 더 반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 애착을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아버지가 주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극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Lamb, Hwang, Frodi, & Frodi, 1983)과 지적, 사회적 능력 발달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Lamb, Pleck, & Levine, 1985)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발달하고, 폭력에 대해서도 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공감능력

공감은 Rogers(1959)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치료적 변화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조건(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일치성)에서 주장된 개념이다. Rogers(1959)는 공감이란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그 사람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느낌과 의미에 민감해 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Kohurt(1959)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의 경험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내적인 체험을 상상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하였고, Esser(1974)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표집해서 지각하고 공명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Esser & Schneider, 1990).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희경, 2003). 공감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여 관점 수용

(perspective-taking)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감을 단일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다차원 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Davis, 1994; Bohart & Greenberg, 1997). Hoffman(1982)은 초기의 공감은 무의식적인 정서 감염으로 인한 정서공유로 이루어지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역할 수용의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더 성숙한 형태로 변한다고 하였다(정혜연, 2004, 재인용). 따라서 공감능력은 사고와 동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측면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를 대리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 내면적으로 일어난 공감을 언어와 행동으로 상태에게 표현하는 표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태도

폭력태도는 폭력행동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성향 및 가치관과 관련된다. 즉,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폭력행동에 선행하는 심리적인 태도(윤화석, 2002)로 설명된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폭력에 대한 행동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장금순(2005)은 학교폭력태도에 대해 “아동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평소에 인식하는 것으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 가해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이 발생 하였을 때 대처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Besag(1989)는 연구를 통해 또래 폭력에 대해 허용적·방관적 태도를 가질수록 가해행동을 많이 하고, 가해행동과 피해자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행동을 많이 하고 가해행동과 피해자에 대해 방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방관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즉, 학교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아동일수록 피·가해자가

될 확률이 커지고, 그러한 경험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다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장금순, 2005). 이러한 경향은 법규나 일탈행위에 대한 태도(김준호, 2002), 괴롭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김예성, 김광혁, 2008)와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폭력 가해학생을 바라보는 태도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는 폭력 가해학생이 또래들 사이에서 평균이나 그보다 높은 인기를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평균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93). 즉, 가해 학생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피해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연구(Perry, Williard, & Perry, 1990)에서는 일반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공격할 때 더 많은 물질적 보상과 상대가 고통을 표현하고 보복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피해 학생들의 또래친구들은 피해학생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또래 폭력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sche & Knoff, 1994). 즉,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폭력태도의 관계

많은 선행 연구들이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적응적 행동 및 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노성호, 2005; 김지현, 2002; Yu, 2010; Yu & Gamble, 2009, 2010). Hirschi(1969)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와 애착관계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애착관계를 깨뜨릴 것을 우려해 비행 행동을 자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문제 행동을 덜 하고(Baumrind, 1991), 자녀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te, 2007). 또한 아버지가 아동의 성역할, 성취 동기, 도덕성 발달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Lamb, 1986), 친구관계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Youngblade, Park, & Belsky, 1992), 아버지가 아동의 인지발달을 강화하고(Radin, 1981), 아동의 인내심, 이해력, 사회적·도덕적 성숙에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Biller, 1993).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자녀들이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에 대해서도 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의 관계

애착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공감능력을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남미경, 방희정,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hon, 1992; Ryan, 1997). 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가짐으로써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윤, 2010).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부모가 표현하는 정서를 통해 어떤 정서가 적절한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배우게 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정서에 잘 반응하고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회적인 능력이 높았고

(Baumrind, 1991), 어머니와의 친밀감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친밀감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Amato, 1994). 또한, 자녀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고, 정서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te, 2007). 정서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하고 모자관계를 지지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들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보고도 있다(Biller, 1993). 어머니와의 애착과 비교할 때 아버지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애착을 형성하므로 자녀들의 공감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문제해결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지영(2002)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교우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김소라(2004)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회라는 외부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감능력과 폭력태도의 관계

폭력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감능력의 결여이다.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희경, 2003)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간접 경험함으로써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Moore, 1990). Olweus(1994)가 언급한 폭력 가해

자의 공통적인 핵심적 성격 특성은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니면서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다. 폭력 가해 학생들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김진영, 2006; Yu & Gamble, 2009)들도 공감능력이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태도가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개념으로서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태도(윤화석, 2002)라고 볼 때 공감능력이 발달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고통과 아픔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그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폭력 행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 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신건강대책 공청회’에서는 12세가 된 폭력 가, 피해 아동들의 5세 때 평가된 공감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낮았으며,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아동들이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공감능력을 보였다는 국제학술지 [아동심리·정신의학저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결여되면 타인을 지배하고 학대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의 표정과 말투, 태도 등으로 생각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결여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부연 설명하였다(한겨레신문(2012, 6, 25)).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폭력태도가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폭력행동에 선행하는 심리적인 태도(윤화석, 2002)라고 본다면 공감능력은 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지역 중학교 1, 2학년 남·여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비밀보장과 설문 요령에 대한 담임교사의 충분한 설명 후 반 단위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190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1학년이 124명(65.2%), 2학년이 66명(34.7%)이었으며, 남학생이 96명(50.5%), 여학생이 94명(49.5%)이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16명(8.5%), 그렇지 않은 학생이 171명(91%)이었다. 아버지 연령대는 40대가 148명(77.9%)로 가장 많았고 30대 2명(1.1%), 50대 이상이 40명(21.1%)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34명(70.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수료이상 42명(22.1%), 고등학교 졸업 12명(6.3%), 고등학교 이하 2명(1.1%)이었다. 아버지의 월수입은 501만 원 이상 98명(63.2%), 401~500만 원 24명(15.5%), 301~400만 원 17명(22%), 201~300만 원 11명(7.1%), 101~200만 원 5명(3.2%)으로 각각 조사 되었다.

측정 도구

아버지와의 애착

Armsden과 Greensberg(1987)가 개발한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성경(2002)이 번역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고(권지은, 2002), 아버지와의 애착을 묻는 문항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서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감(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 의사소통(아버지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도), 소외감(아버지와의 정서

적 거리감과 아버지에게 느끼는 분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9, .90, .84였다.

공감능력

Davis(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와 Bryant(1982)의 Index of Empathy를 활용한 김현주(2009)의 검사 문항을 참고하여 23문항을 채택하였다. 공감적 각성, 관점 취하기, 정서적 조망, 개인적 고통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에서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 채점 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였다.

폭력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폭력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2003) 학생용을 참고하여 14개 문항을 선정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장금순, 2005). 하위요인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태도로 구성되었다. 1점에서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태도 문항에 대해서는 역 채점 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3이었다.

연구 결과

본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1. 아버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 폭력태도의 상관관계

변인	아버지 애착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공감능력	폭력태도	M	SD
1. 아버지애착		.92**	.88**	.73**	.09	-.12	3.42	.59
2. 신뢰감	.92**		.79**	.52**	.04	-.07	3.60	.72
3. 의사소통	.92**	.79**		.40**	.15	-.08	3.30	.72
4. 소외감	.87**	.68**	.71**		.04	-.18	3.35	.66
5. 공감능력	.30**	.29**	.30**	.23*		-.33**	3.03	.38
6. 폭력태도	-.12	-.10	-.11	-.10	-.26*		2.38	.38
M	3.40	3.62	3.15	3.42	3.35	2.40		
SD	.73	.79	.84	.78	.40	.30		

Note. N = 190, *p < .05. **p < .01. 대각선 위로는 남학생, 아래는 여학생이 보고됨.

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별 하위요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남·여학생 모두 아버지와의 애착이 폭력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과 폭력태도와는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애착이 공감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AMOS(Arbuckle, 200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측정모델에서는 남·여학생간의 차이도 함께 조사되었다. 아버지와의 애착, 공감능력, 폭력태도 간의 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14) = 37.11, p < .01; CFI = .96; RMSEA = .094; 90\%CI = .058, .131$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동일성 검증에서 모든 요인 적재량은 남녀 학생에게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다음으로 남·여학생 동일하게 모든 요인 적재량을 통제하여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는 $\chi^2(16) = 39.09, p < .01; CFI = .96; RMSEA = .088; 90\%CI = .053, .123$ 으로 나타났다.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 검증에서 지수량의 변화량은 $\Delta\chi^2(2) = 1.98, ns, \Delta CFI < .001$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체 측정 동일성

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어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 적재량과 방해요인들을 차단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20) = 51.65, p < .001; CFI = .95; RMSEA = .092; 90\% CI = .061, .123$ 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정 되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적합지수 변화량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CFI변화량($\Delta\chi^2(4) = 12.56, p < .05, \Delta CFI = .015$)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chi^2(18) = 39.68, p < .01; CFI = .96; RMSEA = .080; 90\% CI = .046, .114$. 나아가 오류 변수들의 동일성 검증을 진행하여 $\chi^2(22) = 43.01, p < .001; CFI = .96; RMSEA = .071; 90\% CI = .039, .103; \Delta\chi^2(6) = 15.41, p < .05, \Delta CFI = .017$ 의 결과를 얻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부분적인 절편 동일성 검증과 동일성 모델간의 적합 지수 변화량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Delta\chi^2(4) = 3.33, ns, \Delta CFI < .001$, 전체적인 동일성의 오류는 피할 수 있었다.

측정 모형의 동일성 검증에 이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조적 동일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chi^2(16) = 39.42, p < .01; CFI = .960; RMSEA = .088; 90\% CI =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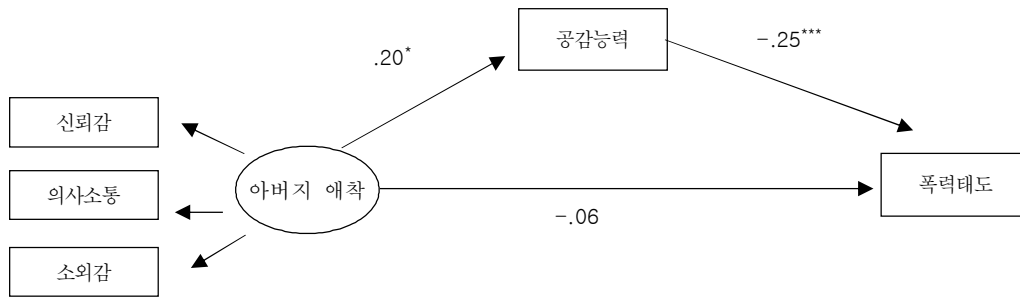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와의 애착이 중학생 자녀의 공감능력과 폭력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 모형

Note.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보여줌. $\chi^2(4)=1.9, m; CFI = 1.00; RMSEA = .000; 90\%CI = .000, .076.$

* $p < .05.$ ** $p < .01.$ *** $p < .001.$

.123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다. 모든 구조 경로들이 각 그룹 안에서 자유롭게 추정되는 연구 모델과 모든 경로들이 양 그룹 모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완전 구속모형을 비교한 결과 남·여학생에 대해 동일성이 발견되었다. $\chi^2(24) = 47.13, p < .01; CFI = .96; RMSEA = .072; 90\% CI = .041, .102; \Delta\chi^2(8) = 7.71, m, \Delta CFI < .001.$ 구조모형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태도에 미치는 아버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중학교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폭력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폭력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을 줌으로써 폭력태도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애착과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언급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 방식 등이 자녀의 폭력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적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폭력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자녀가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고

(Lamb, Hwang, Frodi, & Frodi, 1983; Lamb, Pleck, & Levine, 1985),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덜 보이며(Baumrind, 1991), 어머니와의 친밀감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친밀감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Amato, 1994)는 선행 연구들은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공감 능력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폭력태도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입증한 본 연구 모형은 부모애착과 공감 능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on, 1992; 정지윤, 2010)이나 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덜 나타내고 정서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Gate(2007)의 연구를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감능력이 인간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았던 Moore (1990)의 견해에 따르면 공감능력은 비행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공감능력이 청소년들이 폭력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아버지와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형

성된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이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 역할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지도와 부모상담 및 아버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후속 연구로서 청소년의 공감증진 프로그램과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석 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형태의 다양한 공감증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폭력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니므로 세 번 수 (아버지와와의 애착, 공감능력, 폭력태도)간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한이 있다. 둘째, 분석 대상이 많지 않고(190명),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하여 국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cross - informant 방식이나 관찰 등 다각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유미 (201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 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라 (2004).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아동학회지
김예성·김광혁 (2008).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한국아동학회, 29(4), 213-229.
김준호 (2002).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06). 학령기 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효과.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2009).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미경, 방희정 (2007). 애착 단기점화가 공감 및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 내적작동모델 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40-441.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83-605.
신지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 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경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 요소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16(4), 189-206.
윤화석 (2002).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행동과 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선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미 (1996).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경 (2003). 문화성향,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17(4), 1-25.
장금순 (2005). 민속놀이를 활용한 초등학생 학교폭력

-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윤 (2010). 청소년의 애착과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연 (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예단 (2012).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31-1042.
- Arbuckle, J. L. (2009). Amos 18 user's guide. Crawfordville, FL: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t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24.
- Batsche, C. M. & Knoff, H. M.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23, 165-174.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esag, V. E. (1989) *Bullies and Victims in schools.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ERIC.
- Biller, H. B. (1993). *Father and families: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Boston: Auburn House
- Bohart, A. & Greenberg, L. (1997). Empathy revisit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2, Separation: Anxiety &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 Davis, M. H. (1980). A multimediat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Dougan, B. K., Brand, A. E., Waxler, C. Z., Usher, B., Hastings, P. D., Kendziora, K., & Garside, R. B. (2007).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Differences in sex, age and problem status. *Social Development*, 16, 326-342.
- Esser, U., & Schneider, I. (1990). Client-centered partnership therapy a relationship therapy. in G. Lietner, J. Rombayts, & R. Van Balen (Eds.), *Client-centered and experimental psychotherapy in the nineties* (pp839-846). Belgium: Leuven University Press
- Gates, M. K. (2007).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s and responsivenes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hut, H. (1959).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analysi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l of observation and theory. In P. H. Ornstein (Eds.), *The search for the self*, 1, 205-302.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Lamb, M. E., Hwang, C. P., Frodi, A. M. & Frodi, M. (1983). Security of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to sociability with strang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 172-187.
- Lamb, M. E., Pleck, L. H., & Levine,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Lahey & A. Kazdin (Eds.), *Advanced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 Lovas, G. S. (2005). Gender and patterns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toddler and father-toddler dya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327-353.
- Moore B. S. (199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14, 75-79.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 R. D. (2005).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김성봉 역). 서울: 샘터. (원저 Fatherhood, 1981, 1996)
- Perry, D. C.,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adin, N. (1981). Childrearing fathers in intact families, 1: Some Antecedent and Consequences. *Merrill Palmer Quarterly*, 27(4), 489-514.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s),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Vol. 3)*. New York: McGraw-Hill.
- Ryan, G. (1997). Phenomenology: a developmental contextual view. In G. Ryan and S. Lane (Eds.). *Journal Sexual Offendings: Cause, Consequence and Correction* (122-135). SF: Jossey-Bass.
- Youngblade, L. M., Park, K. A., & Belsky, J. (1993). Measurement of young children's close friendship: A comparison of two independent assessment syst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attachment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 563-587.
- Yu, J. J., & Gamble, W. C. (2009). Adolescent relations with their mothers, siblings, and peers: An exploration of the roles of maternal and adolescent self-criticism.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 672-683.
- Yu, J. J. (2010).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parental knowledge and adolescent self-control: A cross- sequential nationwide study of Korean you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 458-467.
- Yu, J. J., & Gamble, W. C. (2010).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ffordances on school involvement and delinquency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 811-824.
- 1 차원고접수 : 2013. 10. 13.
수정원고접수 : 2013.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3. 11. 27.

Empathy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to Father and Aggressive Attitudes in Adolescents

Jong Sook Hong

Yeon Kyung Ko

Jeong Jin Yu

Tellus international counseling institute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father on their aggressive attitudes. Adolescents' empathetic understanding was hypothesized to serve as a mediator between their attachment to father and aggressive attitudes. Participants included 190 seventh-through-eighth graders (96 boys) in middle school in Kyounggi provi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zed relation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and that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father was related to their aggressive attitudes not directly, but indirectly through their empathetic understanding. That is,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father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development of empathy, which in turn reduces their aggressive attitudes. Given the fact that adolescents' aggression-related attitudes, beliefs, and values should be revised to effectively prevent school violence, the present findings showing that adolescents' empathy cultivated via their secure attachment to father plays a critical role in their aggressive attitudes have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fforts.

Key words : aggressive attitude, father-child attachment, empathy, adolescent